

가부장적 가정의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

이 성 식*

초 록

이 연구는 가부장적 가정의 구조적 환경이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봄에 있어 그것을 남녀 청소년에 각각 적용해 본다. 이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이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강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그 이유를 가정과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의 서로 다른 사회화과정에서 찾는다. 서울시 남녀중학생 715명 대상의 조사결과 가부장적 가정의 비행에의 영향이 여자청소년에서보다 남자청소년에서 더 강하며, 남자청소년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은 부모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소 그 영향력은 낮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도 가부장적 가정의 영향은 비행유발의 환경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남녀에서 가부장적 가정의 영향의 경로가 다소 다르다는 것을 제시했다.

주제어 : 가부장적 가정, 성, 청소년비행, 차별적 사회화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I. 서 론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인은 남녀 청소년에게 동일한가? 그동안 청소년비행 연구는 남자청소년들을 주 연구대상으로 시도되어 왔었으나 여자청소년비행의 증가로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Smith & Paternoster, 1987). 기존의 대표적인 비행이론들에서 강조하는 원인들은 일반성을 갖기에 남녀에 따라 그 원인이 다를 것이라는 특수성을 가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차별접촉이론에서는 남녀 모두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되면 비행태도의 학습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에 따르면 가부장사회에서의 남녀의 사회화환경의 차이로 인해 비행의 원인이 남녀에 따라 서로 다를 것이라고 본다(Chesney-Lind, 1997). 이 연구는 과연 비행의 원인에 남녀의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따라 가부장적 가정환경의 영향에 관심을 두며 그것이 남녀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전까지 남녀 비행의 차별적 원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Heimer, 1996; Mazerolle, 1998; Daigle et al., 2007) 가부장적 가정과 같은 구조적 환경요인의 영향에 다소 소홀했다. 가부장적 가정은 비행을 촉발하는가? 아니면 통제하는가? 이에 남녀에 차이가 있는가? Hagan(1987)의 권력통제이론은 가부장적 가정의 남녀 청소년비행에의 영향에 관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이론이다. 이 연구는 권력통제이론에서 더 나아가 수정된 보완 논의를 통해 가부장적 가정이라는 구조적 환경요인이 어떻게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요 이론들로 사회통제이론,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 그리고 긴장이론을 근거로 하여 연구모델을 구성하고 그러한 영향 과정에 남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소홀했던 가부장적 가정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영향력을 다루려고 하며, 그 영향이 남녀에 따라 상이한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가부장적 가정의 영향력과 그 과정의 성별 차이, 그리고 남녀에 따른 각기 상이한 이론모델의 필요성을 타진해 보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가부장적 가정의 영향의 남녀차와 권력통제이론

기존의 비행이론들 중 가부장적 가정의 영향력을 다룬 대표적 이론으로는 Hagan (1987)의 권력통제이론이 있다. 권력통제이론에서는 가부장적 가정의 영향이 남녀 청소년에게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부모간의 권력이 불평등한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남녀 불균형이 자녀의 사회화과정에서도 재생산된다고 보았는데, 즉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남녀의 성역할이 엄격히 구분되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통제와 감독이 차별적임을 강조했다. 가부장적 가정의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과 달리 부모로부터 엄격한 통제와 감독하에 놓이게 되고, 전통적 성역할대로 위험추구를 회피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키워짐으로 인해 비행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반면 부모의 권력이 평등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청소년들은 부모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따라서 남자청소년들처럼 보다 활동적이게 되어 비행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처럼 권력통제이론에서는 부모의 권력관계가 평등한 가정에서는 남녀의 비행차가 크지 않지만,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남녀의 비행차가 있으며, 그것은 여자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통제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권력통제이론은 가부장적 가정과 평등가정에 따라 여자청소년들의 비행차이를 언급했지만, 정작 남자청소년들이 가부장적 가정과 평등가정에 따라 비행에 차이가 있는지를 소홀히 다루었다. 그러나 권력통제이론의 주장대로라면 가부장적 가정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자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비행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Messerschmidt, 1986). 전통적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여성에게 전통적 여성상을 강조하지만 남성에게는 강인한 남성상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통적 여성상을 갖는 여자청소년들은 비행을 덜 저지르게 되지만, 전통적 남성성 성향의 남자청소년들은 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것을 보고하는데(Simpson & Elis, 1995), 그것은 구조적 가부장적 가정환경에 의해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가부장적 가정환경은 여성의 비행을 낮출 수 있지만, 여성과 달리 전통적 가부장적 가정의 환경에서 자란 남자청소년들은 남성성의 작용으로 더 많은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

2. 가부장적 가정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사회화과정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부장적 가정이 비행에 영향을 주는 과정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존의 주요 세 이론적 시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사회화와 관련해서 기존 이론 중 가장 대표적 이론으로는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 차별접촉/사회화습이론(Sutherland, 1947), 그리고 긴장이론(Agnew, 1992)을 들 수 있다. 사회통제이론은 부모의 적절한 통제와 감독이 없을 때 비행을 일으킨다고 보는 반면, 차별접촉/사회화습이론은 가정에서의 비행학습과정을, 그리고 긴장이론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과 긴장관계를 비행의 원인으로 다룬다.

가부장적 가정과 관련해서 앞서 권력통제이론에서는 기존 비행연구에서부모의 통제와 감독의 사회통제론적 시각에 주로 주목했는데, 이 시각에서 보면 가부장적 가정의 여자청소년들은 부모의 통제와 감독으로 비행 가능성이 낮지만 가부장적 가정의 남자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통제와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움으로 인해 비행을 더 저지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비록 권력통제이론은 사회통제론적 시각에서의 사회화과정에 주로 주목했지만 그 논의를 좀 더 확대해 본다면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차별접촉/사회화습이론에서 강조하는 가정에서의 강압적 양육과 부모의 폭력을 통해 비행을 학습함으로써 인해 비행을 유발할 수도 있다. 부모간의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는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가정폭력을 유발하고(Bogard & Yllo, 1988), 또 부모와 자식간의 권력관계에서도 부모의 통제와 규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모는 응징으로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남녀 모두는 폭력을 학습하게 되고 그로 인해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Campbell, 1993; Messerschmidt, 1993). 또한 긴장이론에서는 부모와의 긴장과 갈등이 비행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이 시각에서 보면 가부장적 가정에서의 지나친 규제와 폭력, 그리고 의사소통의 부재는 남녀 모두에게 부모와 자녀의 갈등과 긴장관계를 초래하여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권력통제이론에서처럼 가부장적 가정으로 인한 부모의 차별적 감독과 통제에 주목할 경우 가부장적 가정은 남자청소년에게 비행을 유발하고 여자청소년에게 비행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할 수 있지만, 비행학습이나 긴장을 또 다른 사회화과정으로 상정할 경우는 그러한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가부장적 가정은 남자청소년에게서 뿐만 아니라 여자청소년에게 폭력학습의 장이 될 수 있고, 또 부모의

강압적 통제가 남녀 모두에게 긴장을 발생시켜 비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성식과 전신현(2001)의 여자청소년대상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이 여자청소년들에게 부모의 통제로 비행을 낮출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에서의 폭력과 부모와의 갈등을 일으켜 비행을 유발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즉 가부장적 가정은 부모의 감독과 통제의 경우는 몰라도 남녀 모두에게 비행학습과 부모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비행연구에서는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서 강조하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가부장적 가정은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에 영향을 줌으로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점을 권력통제이론에서는 소홀히 다루었기에 보완이 필요하다(Singer & Levin, 1988; Morash & Chesney-Lind, 1991; 이성식·전신현, 2001). 남자청소년에게 가부장적 가정은 부모의 낮은 감독이외에 강압적 양육과 부모와의 갈등으로 비행친구와 사귀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여자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지나친 감독과 통제, 가정 폭력과 갈등이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부장적 가정은 남녀 모두에게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Singer & Levin, 1988; 이성식·전신현, 2001; 김정규, 2009). 그렇지만 남자청소년과 비교할 때 여자청소년에게는 그 정도가 약할 수 있는데 가부장적 가정의 여자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감독으로 비행친구와의 접촉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가부장적 가정과 사회화과정 요인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에 있어 성별 차이

그런데 가부장적 가정이 가정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요인이 비행으로 이어지는지에 성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김준호와 김은경의 연구(1995)에서는 부모의 감독의 비행에의 영향은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에게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즉 부모의 감독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남자청소년의 비행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전영실, 2003). 즉 부모의 감독의 비행에의 영향은 남녀에 따라 다르며 여자청소년에게서 더 강할 수 있다.

부모의 강압적 양육과 폭력은 여자청소년에게서 비행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Chesney-Lind & Sheldon, 1998; Spohn, 2000; 이성식·전신현, 2001; 김성경, 2003). 아울러 그 영향을 남녀에게서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에게서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Herrera & McCloskey, 2001). 하지만 Heimer와 De Coster(1999)는 부모의 강압적 양육이 남자청소년의 비행학습에 더 영향을 준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부모의 폭력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에서 강할 수 있겠으나 남녀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

부모와의 갈등과 같은 일상긴장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남녀에 따라 다르고, 특히 그것은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강하다는 결과가 제시된다(Briody & Agnew, 1997). 그 이유는 남자는 긴장의 원인을 외부에 귀인하고, 화와 같은 공격적 반응을 보이며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는 경향이 높지만, 여자는 여러 생활사건이나 긴장에 대해 화보다는 죄책감, 우울, 슬픔과 같은 자기지향적인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Briody, 2001; Hay, 2003; Kaufman, 2009). 실제로 그러한 이유로 여자청소년은 부모와의 가정갈등이 있어도 이러한 상이한 정서상의 반응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에 비해 남자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갈등이 있게 되면 비행가능성이 더 크다는 결과가 이후 연구들에서도(Daigle et al., 2007; Jang, 2007; 김정규, 2009) 지속적으로 제시된다.

한편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차별접촉요인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남녀 모두에게 유사하게 중요하다는 연구가 일반적이다. 비록 비행친구의 영향이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크다는 연구결과 있지만(Smith & Paternoster, 1987; Piquero et al., 2005), 그 영향은 여자청소년에게서도 나타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Daigle et al., 2007). 아울러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 사귄 경우 비행태도가 형성됨으로 인하여 비행을 한다고 보았는데(Matsueda & Heimer, 1987) 비행태도의 경우에도 비행에 대한 영향력에는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다(Heimer, 1996; Heimer & De Coster, 1999).

이들 논의를 통해 본다면 가부장적 가정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남자청소년에게 가부장적 가정은 부모의 낮은 감독과 통제, 부모의 폭력,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자청소년에게 가부장적 가정은 부모의 높은 감독과 통제로 비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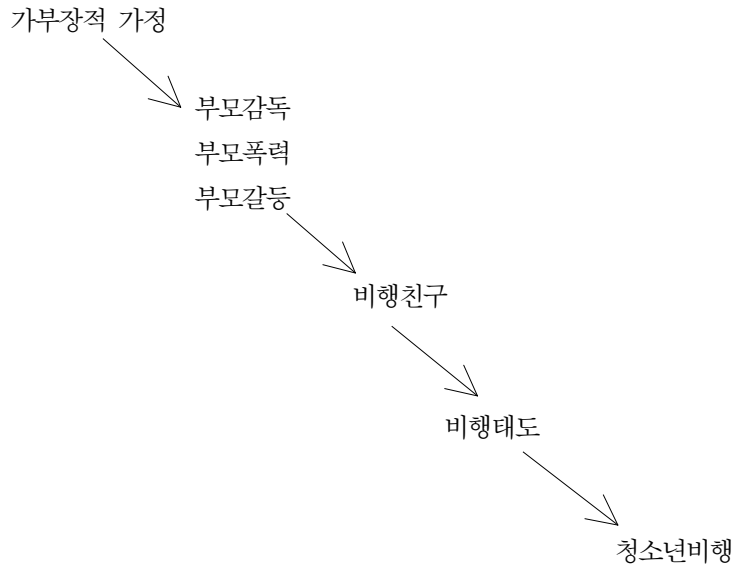
통제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폭력과 부모와의 갈등을 유발하지만 부모와의 긴장과 갈등이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여자청소년에게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다.

III. 연구모델과 연구방법

1. 연구모델과 가설

앞서 논의한대로 본 연구의 모델을 정리하면 [그림 1]에서와 같다. 본 연구의 주 독립변인은 가정의 구조적 환경으로서 가부장적 가정이다. 그리고 최종 종속변인은 청소년비행이다. 이 연구에서는 권력통제이론을 좀 더 보완하고 사회통제, 차별접촉/사회학습, 그리고 긴장이론에 근거하여 가부장적 가정이 비행에 미치는 경로에서 가정에서의 사회화과정과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의 영향력을 다루기로 하는데, 즉 가부장적 가정이 부모의 감독(부족), 부모의 폭력,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사회화가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되면 비행에 호의적 정의와 태도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비행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러한 경로과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차별접촉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으로 비행태도를 학습하게 되면 비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보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러면 누가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되는가를 묻고 그것을 여러 이론에서의 가정에서의 사회화과정에서 찾는다(Elliott et al., 1988; Matsueda & Heimer, 1987; Agnew, 1993). 이렇듯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화과정을 여러 이론에 근거하는 점에서 통합론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차별접촉과 태도학습을 최종 원인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큰 골격은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 두고 있다.



[그림 1] 가부장적 가정과 청소년비행의 그 경로

이 연구는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남녀 모두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되면 비행태도를 학습함으로 해서 비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비행친구와의 접촉까지의 과정에서는 남녀의 사회구조적 환경 및 사회화과정의 차이 때문에 서로 상이할 것이라고 본다(Heimer & De Coster, 1999). 가장 우선적으로는 가부장적 가정이 비행친구와의 차별접촉이나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자청소년에게서 보다는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강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 이유는 가부장적 가정의 남자청소년들은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적고,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며, 부모와의 갈등을 겪게 되어 비행친구와 사귀게 되는 반면, 가부장적 가정에서 여자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폭력이나 갈등을 겪지만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강하여 비행친구와 사귀는 등의 비행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감독, 부모폭력, 부모와의 갈등이 비행으로 이어지는 영향은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부장적 가정으로 인한 부모폭력은 남녀 모두에게서 큰 차이 없이 비행친구와의 접촉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부모의 감독의 영향력과 작용은 상대적으로 여자청소년에게서 더 크다는 점에서(김준호·김은경, 1995) 남자청소년에게서 가부장적 가정에 의한 부모의 감독약화는 비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여자청소년에게서의 부모의 감독은 비행통제를 하는데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처럼 여자청소년의 경우 긴장이 비행으로 쉽게 표출되지는 않는다고 볼 때 부모와의 갈등의 경우는 남자청소년에게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 비행유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자청소년에게서는 비행으로 이어지는 않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이렇게 본다면 가부장적 가정의 환경은 남녀 모두에게서 부모의 폭력으로 비행유발의 환경을 제공하는 면에서는 일치하지만, 남자청소년에게는 부모의 감독이 적고, 또한 가부장적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갈등은 남자청소년에게 더 비행유발이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가부장적 가정은 여자청소년에게보다는 남자청소년에게 더 비행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측정

본 연구의 주 독립변인으로 가부장적 가정은 이전의 국내연구에서와 같이(이성식·전신현, 2001; 김정규, 2009),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질적인 권력관계외에 부모와 자식간의 권력관계가 불평등한지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세 질문을 사용했는데,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히 다른 사람들은 꿈쩍 못한다”, “우리 집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꿈쩍 못한다”, “우리 집에서 부모님은 자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한다”를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781$).

가정에서의 사회화요인으로 우선 부모의 감독은 Hirschi(1969)가 측정한대로 “부모님은 내가 밖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의 한 문항을 사용하여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부모의 폭력은 부모의 강압적 양육의 측정항목으로 “부모님은 나를 혼내실 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몽둥이로 때리신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의 세 문항을 사용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961$). 또한 부모와의 갈등을 위해서는 “나는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다”, “나는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많다”, “나는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한다”의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alpha=.892$).

차별접촉과정의 요인으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항목들을 제시하고 “당신이 친

하게 지내는 친구 중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를 질문하여 사용하였고, 비행태도는 비행항목들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행동들은 나쁜 행동이다”의 한 문항을 사용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 후 역으로 재부호화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인으로 비행은 열 항목의 문항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흡연, 음주, 미성년자 출입불가장소의 출입, 절도, 강도, 폭행, 성희롱, 강간, 성관계, 약물사용 등의 경험여부를 질문하여 ‘없다’는 0으로, ‘있다’는 1로 코딩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들 열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3.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이다. 이전 비행연구는 주로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연령이 다소 저연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일곱 개 중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1, 2, 3학년 한 학급씩을 선정하기로 하며, 선정된 학급에서 학급학생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08년도 7월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718개의 설문을 회수하였는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71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IV. 분석결과

〈표 1〉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사회배경적 특성을 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364명으로 50.9%를, 여학생이 336명으로 47.0%를 차지해 성별분포는 남자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2세에서 16세까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14세가 257명(35.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15세로 196명(27.4%), 13세가 191명(26.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계층적 변인과 관련하여 한 달 평균 가족수입을 살펴보면 가족 월수입이 201만원에서 300만원 이하가 164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대가 124명(17.3%), 400만원대가 101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명	%
성		
남성	364	50.9
여성	336	47.0
무응답	15	2.1
연령		
12세	58	8.1
13세	191	26.7
14세	257	35.9
15세	196	27.4
16세	13	1.8
가족수입		
100만이하	32	4.2
101-200만	89	12.8
201-300만	164	23.0
301-400만	124	17.8
401-500만	101	14.6
501-600만	34	4.8
601-700만	21	3.4
701-800만	9	1.4
801-900만	9	1.4
901만이상	37	5.3
무응답	96	13.4
총	715	100.0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된다. 그 결과를 보면 가부장적 가정은 3-15범위에서 남녀 모두에서 그 점수가 낮았으나 남자 청소년의 점수가 6.164로 다소 더 높았다. 부모의 감독은 1-5범위에서 남자청소년 3.169보다 여자청소년 3.467이 더 높았다. 부모의 폭력은 3-15범위에서 남녀 모두에서 그 점수가 낮았으나 남자청소년이 6.187로, 여자청소년 5.869보다 그 점수가 더 높았다. 부모와의 갈등은 3-15범위에서 남자청소년 7.212보다 여자청소년이 7.590으로

다소 더 높았다. 비행친구의 수는 남자청소년이 1.781로, 여자청소년보다 더 높았으며, 비행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그 점수가 매우 낮았으나 남자청소년이 1.728로 다소 더 높았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비행은 0-10범위에 남자청소년이 1.006, 여자청소년이 .767로 남자가 그 점수가 더 높아 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남자	여자	범위
가부장가정	6.164	5.650	3-15
부모감독	3.169	3.467	1-5
부모폭력	6.187	5.869	3-15
부모갈등	7.212	7.590	3-15
비행친구	1.781	.923	0-50
비행태도	1.728	1.602	1-5
비행	1.006	.767	0-10

본 연구모형을 위한 순차적인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남녀 각각 <표 3-1>과 <표 3-2>에 제시되며 그 값은 비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나타낸다. 먼저 <표 3-1>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분석결과를 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가부장적 가정의 구조적 환경일수록 $p<.001$ 수준에서 부모의 폭력과 부모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며, 그러한 결과는 <표 3-2>의 여자청소년에서도 나타난다. 하지만 남자청소년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이 부모의 감독과는 아무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고,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유의미한 관계를 제시했는데 그러나 권력통제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가부장적 가정에서 부모의 감독은 $p<.05$ 수준에서 오히려 그 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의 네 번째 결과를 보면 <표 3-1>의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게 부모와 갈등이 있는 남학생이 비행친구와 더 사귀어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3-2>의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아무 가정요인도 비행친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한편 비행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의 다섯 번째의 결과를 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표 3-1>에서와 같이 부모의 폭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행친구와 사귀수록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표 3-2>의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감독이 낮을수록, 그리고 비행친구와 사귀수록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에 있어서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의 최종결과를 보면 <표 3-1>에서처럼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비행친구와의 접촉만이 유의미했고, 본 연구의 예측과는 달리 비행태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표 3-2>에 제시된 대로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태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표 3-1> 가부장적 가정과 청소년비행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남자청소년)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모감독	부모폭력	부모갈등	비행친구	비행태도	비행
가부장가정	-.012	.598***	.447***	.174	.009	.054
부모감독				-.030	-.106	-.055
부모폭력				.040	.052*	.015
부모갈등				.270*	.007	-.008
비행친구					.028**	.117***
비행태도						.120
R제곱	.001	.300***	.147***	.049**	.074***	.199***

* p<.05; **<.01; *** p<.001

<표 3-2> 가부장적 가정과 청소년비행 관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여자청소년)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모감독	부모폭력	부모갈등	비행친구	비행태도	비행
가부장가정	-.049*	.559***	.487***	-.004	.009	-.010
부모감독				-.217	-.103*	-.066
부모폭력				.042	.018	.031
부모갈등				-.016	.012	.033
비행친구					.079***	.147***
비행태도						.410***
R제곱	.014*	.211***	.148***	.020	.101***	.202***

* p<.05; **<.01; *** p<.001

〈표 4-1〉과 〈표 4-2〉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설명변인들의 직,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제시하는데, 가부장적 가정은 비록 직접효과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남자청소년의 경우 총효과가 .162이고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아, 본 연구의 예측대로 가부장적 가정은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비행 을 유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총효과에서 보면 여자청소년은 부모의 감독이 낮 을수록 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청소년에게서 부모의 감독의 영향력 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직접효과를 보면 남녀 모두에서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유의미했 으나, 앞에서의 결과에서와 같이 비행태도는 여자청소년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했다.

〈표 4-1〉 가부장적 가정과 청소년비행 관계에 직접, 간접, 총효과(남자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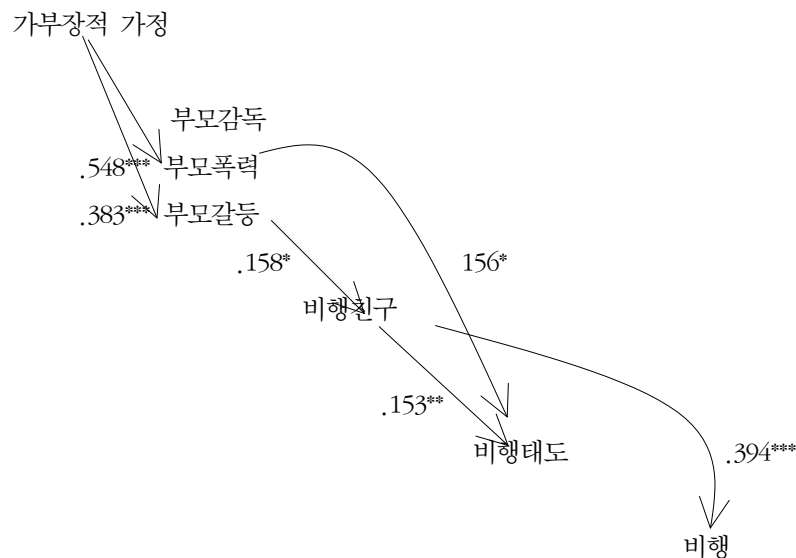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부장가정	.092	.070	.162
부모감독	-.038	-.007	-.045
부모폭력	.027	.030	.057
부모갈등	-.015	.068	.053
비행친구	.394	.012	.406
비행태도	.073	.000	.073

〈표 4-2〉 가부장적 가정과 청소년비행 관계에 직접, 간접, 총효과(여자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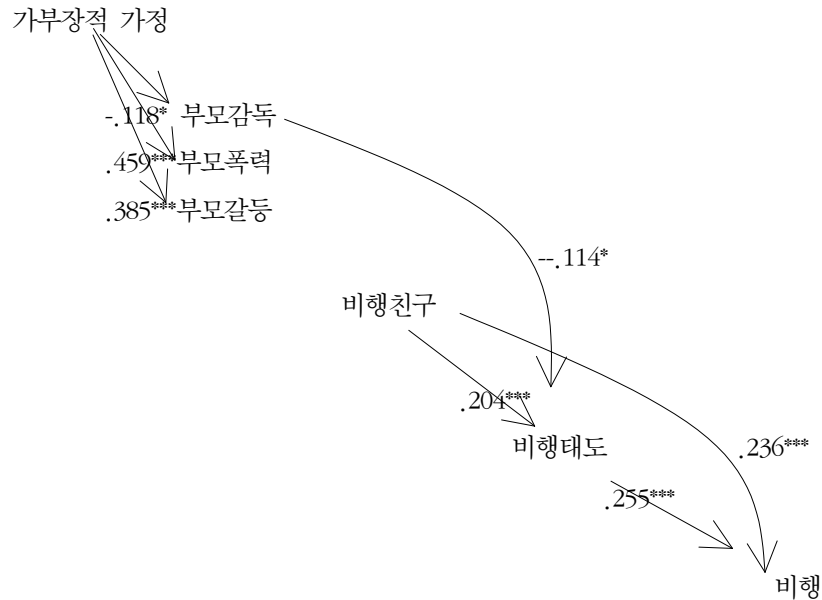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부장가정	-.021	.104	.083
부모감독	-.057	-.092	-.149
부모폭력	.079	.028	.107
부모갈등	.087	-.009	.078
비행친구	.236	.053	.289
비행태도	.255	.000	.073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림 2-1]과 [그림 2-2]의 경로분석 결과로 요약된다. 이는 앞의 분석에서 유의미했던 결과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계수 베타값을 제시한 것으로 가부장 적 가정의 영향력은 남녀 모두에서 다른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경로를 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가부장적 가정이 부모감

독과는 상관이 없으며, 부모폭력을 유발하여 비행태도에 영향을 주지만 비행태도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아 비행에의 경로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가부장적 가정은 부모갈등을 일으키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줘 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가부장적 가정이 부모의 폭력과 부모갈등을 일으키지만 그 이후의 경로로 비행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본 연구의 예측에서처럼 남자청소년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이 비행을 유발하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이 비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가정에 의한 부모의 폭력이 비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부모감독을 낮추고 비행태도에 영향을 줘 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에서 부모의 감독이 낮다는 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과 정반대의 결과이고, 여자청소년의 경우도 가부장적 가정은 간접적으로 비행을 유발하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하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폭력과 갈등이 비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가부장적 가정과는 독립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가부장적 가정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가부장적 가정과 청소년비행의 그 경로(남자청소년)



[그림 2-2] 가부장적 가정과 청소년비행의 그 경로(여자청소년)

V. 결 론

이 연구는 가부장적 가정의 구조적 환경이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봄에 있어 그것을 남녀 청소년에 각각 적용해 보는 것에 주목했다. 이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은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강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본 연구결과는 그러한 가설을 대체로 지지했다.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정의 영향의 이유가 가정에서의 사회화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비행친구나 비행태도 등과의 차별접촉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는데, 남자청소년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은 부모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예측을 어느 정도 지지하였다. 그러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이 부모의 폭력과 부모와의 갈등에 영향을 주었지만 비행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부장적 가정에서 부모의 감독이 높아 비행을 통제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부모의 감독을 낮춤으로 간접적으

로 비행유발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부장적 가정의 영향은 남자청소년에 있어서 더 크지만, 남녀 모두에게 비행유발의 환경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가부장적 가정의 영향에 있어 그 경로에서 남녀가 상이했고,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와의 갈등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그 매개과정에서 작용하였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감독과 비행태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에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가부장적 가정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본 연구의 예측대로 가부장적 가정이라는 구조적 환경요인이 청소년비행에 있어 특히 남자청소년의 경우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가정요인 중 기능적 측면이나 사회화과정에 주목했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시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우리나라가 폭력범죄와 아울러 성범죄가 심각한 것도 이러한 가부장적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 연구결과는 그러한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며, 아마도 이 연구에서 청소년비행중 그러한 폭력범죄에 주목할 때 그 영향력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들에서 주장하듯이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애정과 관심, 부모와 자녀의 갈등해소와 의사소통 증대도 중요하지만 그 근원으로서 권력이 불균형적인 가부장적 가정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남자청소년에게서는 물론이고 여자청소년에게도 비행유발의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가부장적 가정의 영향에 관한 시도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 더 나아가 보다 세련된 한국적 연구모델의 구성과 분석이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경(2003). 여자청소년의 비행경험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 487-510.
- 김정규(2009). 청소년비행 원인의 비교분석: 가부장적 요인과 성차이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pp. 159-189.
- 김준호 · 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식 · 전신현(2001).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대립되는 두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5권 제5호, pp.173-198.
- 전영실(2003). 성, 사회유대, 비행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pp. 67-86.
- Agnew, R.(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 30, pp. 47-87.
- Agnew, R.(1993). Why They do It? An Examination of InTervening Mechanism between Social Control Variables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28, pp. 126-56.
- Bograd, M. & Yllo, K.(1988).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Beverly Hills: Sage.
- Broidy, L.(2001).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Vol. 39, pp. 9-36.
- Briody, L. & Agnew, R.(1997). Gender and Crime: A General Strai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4, pp. 275-306.
- Campbell, A.(1993). *Men, Women, and Aggression*. New York: Basic Book.
- Chesney-Lind, M.(1997). *The Female Offender: Girls, Woman, and Crime*. Thousand Oak, CA: Sage.
- Chesney-Lind, M. & Sheldon, R. G.(1998). *Girl, Delinquency, and Juvenile Justice*. Belmont, CA:Wadsworth.
- Daigle, L. E., Cullen, F. T. & Wright, J. P.(2007).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di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Vol. 5 No. 3, pp. 254-286.
- Elliott, D. S., Huizinga, D. & Ageton, S.(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ss: Sage.

- Hagan, J.(1987). Class in the Household: A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2, pp. 788-816.
- Hay, C.(2003). Family Strain, Gender, and Delinquency. *Sociological Perspectives*, Vol. 46 No. 1, pp. 107-35.
- Heimer, K.(1996). Gender, Interaction, and Delinquency: Testing a Theory of Differential Social Contro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9, pp. 39-61.
- Heimer, K. & De Costner, S.(1999). The Gendering of Violent Delinquency. *Criminology*, Vol. 37, pp. 277-317.
- Herrera, V. M. & McCloskey, L. A.(2001). Gender Differences in the Risk for Delinquency among Youth exposed to Family Violence. *Child Abuse and Neglect*, Vol 25, pp. 1037-1051.
- Jang, S. J.(2007). Gender Differences in Strain, Negative Emotions, and Coping Behavior: A General Strain Theory Approach. *Justice Quarterly*, Vol. 24, pp. 523-549.
- Jensen, G. F, & Brownfield, D.(1986). Gender, Lifestyles and Victimization: Beyond Routine Activity Theory. *Violence and Victims*, Vol. 1, pp. 85-99.
- Kaufman, J. M.(2009). Gendered Responses to Serious Strain: The Argument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Deviance. *Justice Quarterly*, Vol. 26, pp. 410-444.
- Masserschmidt, J. W.(1986). *Capitalism, Patriarchy, and Crime: Toward a Socialist Feminist Criminology*. Totowa, NJ: Rowman and Littlefield.
- Masserschmidt, J. W.(1993). *Masculinities and Crime*.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 Matsueda, R. L. & Heimer, K.(1987). Race, Family Structure and Delinquency: A Tes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Social Control The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2, pp. 826-40.
- Mazerolle, P.(1998). Gender,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Vol. 15, pp. 65-91.
- Morash, M. & Chesney-Lind, M.(1991). A Reformulation and Partial Test of the Power-Control Theory of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Vol. 8, pp. 347-377.
- Piquero, N. L., Gover, L., MacDonald, J. & Piquero, A.(2005). The Influence of

- Delinquent Peers on Delinquency: Does Gender Matters?. *Youth and Society*, Vol. 36, pp. 251-275.
- Simpson, S. S. & Elis, L.(1995). Doing Gender: Sorting Out the Caste and Crime Connundrum. *Criminology*, Vol. 33, pp. 47-79.
- Singer, S. I. & Levin, M.(1988). Power-Control Theory, Gender, and Delinquency: A Partial Replication with Addition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Peers. *Criminology*, Vol. 26, pp. 627-646.
- Smith, D. & Paternoster, R.(1987). The Gender Gap in Theories of Deviance: Issue and Evid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24, pp. 140-172.
- Spohn, R. E.(2000).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Child Maltreatment on Criminal Activity over the Life Course.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Family Research*, Vol. 2, pp. 207-231.
- Sutherland, E. H.(1947). *Criminology*. Philadelphia, PA: Lippincott.

ABSTRACT

Patriarchy Families, Differential Socialization, and Delinquency : A Gender Difference

Lee, Seong-Sik*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triarchy families and the incidence of delinquency and tests this relationship in terms of gender. This study predicts that the effect of a patriarchal family on delinquency is stronger in males than in females and also attempts to explain this hypothesis in terms of socialization in the famil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processes. Using data from 715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a patriarchal family upon the incidence of delinquency is stronger in males and that a patriarchal family leads to parent-child conflicts, which in turn results in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t behavior. In addition, our findings reveal that the effect of a patriarchal family on delinquency is also positive in females. However,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mechanism which operates between patriarchal families and delinquency is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Key Words : patriarchal family, gender, delinquency, differential socialization

투고일 : 5월 20일, 심사일 : 8월 3일, 심사완료일 : 8월 12일

* Soongsil University

